

『유가사지론』 「성문지」의 ‘종성지’에 대해*

김성철**

서론. I 『이만오천송반야』의 종성지. II 「성문지」의 종성지.
III 「성문지」 이후 유가행파 문헌에서 종성지의 궤적. 결론.

요약문 [주요어: 종성, 종자, 이만오천송반야, 성문지, 보살지]

본고의 목적은 『이만오천송반야』에서 성자의 단계 직전에 위치하는 종성지가 최초기 유가행파 문헌에서 수행의 첫 출발점으로 간주된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이만오천송반야』에서 종성지는 성자의 단계 직전이라는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때 종성 개념 또한 ‘성자의 가계’(āryagotra)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예비적 수행의 결과 도달하는 성인의 단계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성문지」와 「보살지」에서 ‘종성지’는 예비적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수행의 첫 출발점 내지는 전제조건으로 하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이후 아비달마적 성격의 유가행파 문헌에서는 ‘종성지’ 개념은 물론 ‘종성’ 개념조차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지위 변화의 근본적 이유는 종성 개념을 종자 개념과 동일시하거나 나아가 종자 개념으로 종성 개념을 대체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한 종성 개념은 원래의 ‘성자의 가계’라는 개념 대신 수행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향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성 개념의 정의에 적용되는 종자 개념 또한 원래의 의미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업과 번뇌의 종자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출세간법의 종자 혹은 열반법의 종자라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종성과 종자 개념의 만남과 상호 변용의 장이 다름 아닌 「성문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1-2007-1-AM0046).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교수. icchantika@hanmail.net

서론

인도불교사상 초기 대승경전에 속하는 『이만오천송반야』(*Pañcaviṃśati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PvP)에서는 삼승에 공통되는 10지[三乘共十地]로 알려진 10지설이 보인다. 이 10지설에서 두 번째 단계인 종성지(種姓地, *gotrabhūmi*)는 제팔지(第八地, *aṣṭamakabhūmi*) 직전에 놓여있다. 이 종성지 단계는 팔리불전에 나타나는 ‘성지인(*gotrabhū*)’ 및 『이부종륜론』에서 대중부(大衆部)설로 알려진 ‘성지법’(性地法, **gotrabhūmidharma*)이라는 단계와도 일치한다.

이 세 계통에 보이는 ‘종성지(*gotrabhūmi*)’, ‘성지인(*gotrabhū*)’, ‘성지법(*gotrabhūmidharma*)’은 설일체유부 수행 단계론에서는 견도 직전에 위치하는 세제일법(世第一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만오천송반야』에서 종성지는 성자의 단계 직전이라는 매우 높은 단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가사지론』(*Yogācārabhūmi*, YBh) 「성문지」(*Śrāvākabhūmi*, ŚrBh)에서 종성지(*gotrabhūmi*)는, 넓은 의미에서는 이후 단계인 취입지(趣入地, *avatārabhūmi*)와 출리지(出離地, *naiṣkramyabhūmi*)를 포함하고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취입지와 출리지 전 단계 곧 수행의 첫 출발점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유가사지론』 「보살지」(*Bodhisattvabhūmi*, BoBh)에서 7지(地)설과 13주(住)설에서 종성지와 종성주(種姓住, *gotravihāra*)가 각각 승해행지(勝解行地, *adhimukticyābhūmi*)와 승해행주(勝解行住, *adhimukticyāvihāra*) 이전에 놓여있는 점과도 대응한다.

본고의 목적은 『이만오천송반야』에서 성자의 단계 직전에 위치

하는 종성지가 최초기 유가행과 문헌에서 수행의 첫 출발점으로 간주된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카사키의 연구¹⁾에 근거하여, 『이만오천송반야』에 나타난 삼승공십지의 종성지 단계를 요약하고, 다음으로 『유가사지론』 「성문지」와 「보살지」에 나타나는 종성지 개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이후 유가행과 문헌에 나타나는 종성 개념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추적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종성 개념의 유의미한 변화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I. 『이만오천송반야』의 종성지

『이만오천송반야』에는 『대지도론』이 3승의 공통된 10지라고 규정한 10지설²⁾이 나타난다. 이 십지는 간혜지(乾慧地, śuṣkavipaśyanā-bhūmi / śuklavipaśyanā-bhūmi / śuklavidarśanā-bhūmi)에서 시작해서 불지(佛地, buddhabhūmi)로 끝나는 10지설³⁾이다. 이 십지설의 두 번째 단계가 종성지(種姓地, gotrabhūmi)고, 세 번째 단계는 제팔지(第八地, aṣṭamaka-bhūmi)라고 불린다. 제팔지란 성자들의 단계인 4향4과를 아라한과부터 역순으로 세면 여덟

1) 高崎(2010[1967]) 참조.

2) 『大智度論』(TD 25, 411a26 - 27): 地有二種. 一者但菩薩地. 二者共地. 共地者. 所謂乾慧地乃至佛地.

3) PvP 230,23-25: punar aparāṃ subhūte daśabhūmayo bhūmyanupalabdhya nopalabhyate/ katamā daśa/ śuklavidarśanā bhūmir gotrabhūmir aṣṭamakabhūmir darśanabhūmis tanubhūmiḥ vitarāgabdhūmiḥ kṛtāvibhūmiḥ pratyekabuddhabhūmir bodhisattvabhūmir buddhabhūmiḥ/

번째라는 의미로서 설일체유부의 수행단계론에서는 예류향(預流向)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성지에서 제팔지로 이어지는 수행 단계는 범부에서 성자로 넘어가는 단계에 대응한다. 유부 수행 단계론에서 세제일법(世第一法)에서 견도(見道)로 이어지는 단계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종성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개념인 ‘성지인(gotrabhū)’ 개념이다. 다카사키가 지적했듯이, 팔리 문헌에서 ‘성지인(gotrabhū)’은 “출가 비구로서, 범부의 상태를 벗어나, 성자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서, ‘gotra’는 그 성자의 종성(ariyagotta=āryagotra)을 의미”⁴⁾한다. 또한 그것은 “성자의 단계에서 말석, 곧 4향4과의 첫 번째인 예류향을 얻기 직전의 상태를 가리키고, 동시에 그 상태(혹은 단계)에 있는 자(成種姓者)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⁵⁾

한편, 팔리 문헌에 나타나는 ‘성지인(gotrabhū)’은 그 어형으로 보아 명백히 산스크리트 문헌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다카사키는 『이부종륜론』과 그 이역에서 대중부의 설로 ‘성지법’(性地法, 種姓法 / 性法 / rigs kyi sa)이라는 용어가 ‘제팔’(第八, *aṣṭamaka), ‘수다원’(須陀洹, srotaāpanna), ‘아라한’(arhat) 등과 나란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성지법’의 원어가 ‘*gotrabhū(-dharma)’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⁶⁾ 대중부 계통의 용어가 팔리 문헌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만오천송반야』의 삼승공십지 중 성문 7지의 경우는 법장

4) ‘gotra’를 ‘āryagotra’로 해석하는 다카사키의 이해는 『대품반야』에 나타나는 ‘성지인’(性地人)을 주석하는 다음과 같은 『대지도론』의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지인이란 성인의 가계(聖人性, *āryagotre)에 태어났기(*√bhū) 때문에 성(性, *gotra)이라고 이름한다”(所謂性地人, 是聖人性中生, 故名爲性: 『大智度論』(TD 25) p. 380b2-3). ; 高崎(2010[1973]) pp. 281-282 참조.

5) 高崎(2010[1967]) p. 274 참조.

6) 高崎(2010[1967]) p. 274, p. 304 참조.

부에 속하는 『비니모경』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언급하지만,⁷⁾ 대중부와 반야경류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⁸⁾ 대중부에서 반야경류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다카사키는 “gotrabhū’란 원래 *gotrabhū-bhūmi 를 의미”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이만오천송반야』에 나타나는 ‘성지인(gotrabhū)’으로 시작하는 수행단계와 ‘성지법(gotrabhūdharma)’으로 시작하는 수행단계, 그리고 ‘종성지(gotrabhūmi)’로 시작하는 수행단계를 각각 그 단계의 사람(人, pudgala), 그 단계의 속성(法, dharma), 그리고 그 단계 자체의 명칭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시키고 있다.¹⁰⁾

A. pudgala	B. dharma	C. bhūmi
		1. 간혜지 (śuskavipaśy-anā-bh.) (śuklavipaśyanā-bh, śuklavidarśana-bh)
1. 성지인(gotrabhū, gotrabhūmi)	1. 성인법(gotrabhūdharma)	2. 종성지(gotrabhūmi)
2. 팔인(aṣṭamaka)	2. 팔인법(aṣṭamaka-dh.)	3. 제팔지(aṣṭamaka-bh.)
3. 수다원(srotaāpanna)	3. 수다원법(srotaāpanna-dh.) 수다원과 (srotaāpannaphala)	4. 견지(darśana-bh.)
4. 사다함(sakṛdāgāmi, sakṛdāgāma)	4. 사다함법(sakṛdāgāmi-dh.) 사다함과(sakṛdāgāmi-ph.)	5. 박지(tanu-bh.)
5. 아나함(anāgāmi, anāgāma)	5. 아나함법(anāgāmi-dh.) 아나함과(anāgāmi-ph.)	6. 이욕지(vītarāga-bh.)
6. 아라한(arhat)	6. 아라한법(arhad-dh.) 아라한과(arhattva)	7. 이작지(kṛtavi-bh.) 7a 성문지(śrāvaka-bh.)
7. 벽지불(pratyekabuddha)	7. 벽지불법	8. 벽지불지

7) 高崎(2010[1967]) p. 277 참조.

8) 대중부와 『팔천송반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가라시마 세이시(2014) p. 62, n. 73 참조.

9) 高崎(2010[1967]) p. 304 참조.

10) 高崎(2010[1967]) p. 305 참조.

	(pratyekabuddha-dh.) 벽지불(pratyekabodhi) 벽지불과(pratyekabuddhatva)	(pratyekabuddha-bh.)
8. 보살(bodhisattva)	8. 보살법(bodhisattva-dh.) 보살과(bodhisattvatva) 도중지성(mārgakārajñāta)	9. 보살지 (bodhisattva-bh.)
9. 붓다(buddha, tathāgato 'rhan samyaksambuddha)	9. 불법(buddha-dh.) 불과(buddhatva) 일체중지성(sarvākārajñāta)	10. 불지(buddhabhūmi) 정등정각지(samyak- sambuddha-bh.)

위의 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이만오천송반야』에서 A. 1. 성지인(gotrabhū)와 B. 1. 성지법(gotrabhūdharmā) 그리고 C. 1. 성지(gotrabhū)는 정확히 동일한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그 단계란 이미 언급하였듯이 성자의 단계인 ‘제팔지’ 직전 단계로서 설 일체유부 수행단계론의 세제일법에 해당하는 단계다. 이는 팔리문헌에 나타나는 ‘종성지(gotrabhū)’ 개념 및 『이부종륜론』의 대중부설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이만오천송반야』에서 ‘종성지(gotrabhūmi)’의 ‘종성(gotra)’의 의미 또한 위에서 언급한 팔리문헌에서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성자의 종성(āryagotra) 곧 성자의 가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점에서 『이만오천송반야』에 나타나는 종성 개념은 성불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예비적 수행 이후에 도달하는 일종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성문지」의 종성지

이상 살펴보았듯이 『이만오천송반야』의 종성지는 성자 직전의

단계를 의미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수행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종성지에 사용된 종성 또한 성자의 종성(āryagotra) 곧 성자의 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었다. 예비적 수행의 결과 도달하여 합류하는 성자 공동체라는 의미인 것이다. 반면, 『유가사지론』 「성문지」와 「보살지」의 수행단계론에 나타나는 종성지는 『이만오천송반야』와는 단계를 달리한다. 본격적으로 「성문지」에 나타나는 종성지를 살펴보기 전에 대승불교의 흐름을 잇고 있는 「보살지」의 종성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

1. 「보살지」의 수행단계론에 나타난 종성지

「보살지」의 수행단계론은 「주품」(住品)과 「지품」(地品)에 각각 나타나는 13주설과 7지설을 들 수 있다. 「지품」의 7지설은 다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살지」 고유의 수행단계론을 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품」의 7지설이란 종성지(gotrabhūmi), 승해행지(adhimutkicaryābhūmi), 정승의락지(suddhādhyāsayabhūmi), 행정행지(caryāpratipattibhūmi), 결정지(niyatābhūmi), 결정행지(niyatacaryābhūmi), 도구경지(niṣṭhāgamanabhūmi)이다.¹¹⁾

이에 대해 「주품」의 13주설은 보살의 12주와 여래의 1주로 구성되어 있다.¹²⁾ 이 13주설은 종성주와 승해행주, 그리고 마지막인 현정등각대보리주(現正等覺大菩提住)를 제외하면 『십지경』의 10지설에 대응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³⁾

11) BoBh[W] p. 367, 1-7. 이 중 gotrabhūmi를 제외한 여섯 단계에 머무는 보살은 「成熟品」에도 나타난다(BoBh[W] pp. 84, 23-85, 4).

12) BoBh[W] pp. 317, 1-318, 9.

13) BoBh[W] p. 367, 1-16. ; 高崎(2010[1973]) p. 366 참조.

7지	13주	10지	
1. 종성지 (gotra-bhūmi)	1. 종성주(gotra-vihāra)		
2. 승해행지 (adhimutkicarya-bh.)	2. 승해행주 (adhimukticyā-vi.)		
3. 정승의락지 (suddhādhyāśaya-bh.)	3. 극환희주(pramudita-vi.)	1. 환희지 (pramudita-bhūmi)	
4. 행정행지 (caryāpratipatti-bh.)	4. 증상계주(adhiśīla-vi.)	2. 이구지 (vimala-bh.)	
	5. 증상심주(adhicitta-vi.)	3. 발광지 (prabhākari-bh.)	
	6-8. 증상혜주 (adhiprajña-vi.)	①각분상응(bodhipakṣyapratisaṃyukta-)	4. 염혜지 (arciṣmati-bh.)
		②제상응(satyapratisaṃyukta-)	5. 난승지 (sudurjaya-bh.)
		③연기상응(pratityasamutpādapratisaṃyukta-)	6. 현전지 (abhimukhi-bh.)
9. 유가행유공용무상주 (sābhisamkāraḥ sābhogo niśchidramārgavāhanonirimitto vihāraḥ)		7. 원행지 (dūraṃgama-bh.)	
5. 결정지 (niyatā-bh.)	10. 무가행무공용무상주 (anabhisamkāro 'nābhogamāravāhanonirimitta evavihāraḥ)	8. 부동지(ācala-bh.)	
6. 결정행지 (niyata-caryā-bh.)	11. 무애해주 (pratisaṃvid-vi.)	9. 선혜지 (sādhumati-bh.)	
7. 도구경지 (niṣṭhāgama-bh.)	12. 최상원만보살주 (paramaś ca pariṇiṣpanno bodhisattva-vi.)	10. 법운지 (dharma-megha-bh.)	
	13. 현전등각대보리주 (abhisambuddhabodhi-vihāraḥ)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13주설은 『십지경』의 십지설에 예비단

계로 종성주와 승해행주를 추가하고, 궁극적 단계로 현전등각대보리주(abhisambuddhabodhi-vihāra)를 추가하여 형성된 것이다. 예비단계로 추가된 종성주와 승해행주는 7지설의 종성지와 승해행지에 대응하고 있다.

「주품」에서 승해행주는 초발심부터 의도가 청정하지 못한 단계까지의 보살행, 곧 수행의 첫 출발점인 발심에서 정승의락지 직전까지의 보살행으로 정의된다.¹⁴⁾ 표에서 보듯 정승의락지는 화엄 10지설의 초지인 환희지에 대응한다. 환희지는 『해심밀경』¹⁵⁾ 이래 유가행과 수행도론에서 유부 수행단계론의 견도와 동일시 된다. 따라서 승해행주 이전에 위치한 종성주 곧 종성지는 견도(darśanamārga)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지 못한 수행자의 단계를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더해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보살지」 「보살공덕품」에 나타나는 보살의 열 가지 분류다.¹⁶⁾ 열 가지 보살이란 ① 종성에 머무는 자(住種性, gotrastha), ②이미 수행도에 들어간 자(已趣入, avatirṇa), ③아직 의도가 청정하지 못한 자(未淨意樂, aśuddhāśaya), ④이미 의도가 청정한 자(已淨意樂, śuddhāśaya), ⑤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未成熟, aparipakva), ⑥이미 성숙한 자(已成熟, paripakva), ⑦아직 결정성에 속하지 않는 자(未墮決定, aniyatipatita), ⑧이미 결정성에 속하는 자(已墮決定, niyatipatita), ⑨한 생애만 남겨 둔 자(一生所繫, ekajātipratibaddha), ⑩마지막 생애에 머무는 자(居最後有, caramabhavika)다. 이 열 가지는 종

14) BoBh[W] p. 319, 5-7: tatra katamo

bodhisattvasyādhimukticyāvihārah. iha bodhisattvasya prathamam cittotpadam upādāyāśuddhādhyāśayasya yā kācit bodhisattvacaryā.

15) 『解深密經』(TD 16) p. 706b2-5: 從是已後, 於七眞如, 有七各別.

自內所證通達智生. 名爲見道. 由得此故. 名入菩薩正性離生, 生如來家, 證得初地. ; SNS p. 115, 12-21.

16) BoBh[W] p. 298, 17-19.

성에 머무는 자와 이미 수행도에 들어간 자를 제외하면, 의도와 성숙, 결정성 등을 기준으로 한 쌍으로 이루어진 분류 방식이다. 이 중 ④이미 의도가 청정해진 자까지 「보살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서 ①종성에 머무는(住種姓, gotrastha) 보살이 수학하면서 발심할 때, 그는 ②이미 [수행도에] 들어간 자(已趣入, avatīrṇa)라고 불린다. 바로 그 이미 [수행도에] 들어간 자가 이미 의도가 청정해진 단계(淨意樂地, śuddhāśaya-bhūmi)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③아직 의도가 청정하지 못한 자(未淨意樂, aśuddhāśaya)라고 불린다. 들어갔다면, ④이미 의도가 청정한 자(已淨意樂, śuddhāśaya)다.¹⁷⁾

이 인용문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용어와 개념이 보인다. 먼저 종성지 혹은 종성주라는 용어 대신 주종성(住種姓, gotrastha)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 용어는 이후 살펴볼 「성문지」에서도 종성지라는 용어와 나란히 사용된다. 반면에 「보살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대승장엄경론』(*Mahāyānasūtrālaṃkāra*, MSA)이나 『변중변론』(*Madhyāntavibhāga*, MAV)에서는 종성지 혹은 종성주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주종성이라는 용어만 사용된다. 『유가사지론』 이후 유가행과 문헌에서는 주종성이라는 용어가 종성지라는 용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¹⁸⁾

다음으로 수행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이취입(已趣入, avatīrṇa)이라는 용어가 발심(發心, cittotpāda)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수행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취입(趣入, avatāra)을 발

17) BoBh[W] p. 298,20–23: tatra gotrastho bodhisattvaḥ śikṣamāṇasā cittam utpādayati. so 'vatīrṇa ity ucyate. sa eva punar avatīrṇo yāvac chuddhāśayabhūmiṃ nānupraviṣṭo bhavati tavad aśuddhāśaya ity ucyate. praviṣṭas tu śuddhāśayo bhavati.

18) 高崎(2010[1973]) p. 375 참조.

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변중변론』¹⁹⁾에도 나타난다. 바로 이 취입 단계는 취입지(avatārabhūmi)라는 명칭으로 「성문지」에서는 종성지 다음 단계로 언급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④이미 의도가 청정한 자(已淨意樂, śuddhāśaya)란 그 용어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위에서 언급한 7지설 중 정승의 락지 단계에 있는 보살을 가리킬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장 최초에 위치한 ①주종성(gotrastha) 보살은 7지설의 종성지 혹은 13주설의 종성주에 머무는 보살로서, 아직 수행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나 이후 수행하여 성불할 자격을 갖춘 보살 단계를 의미한다.²⁰⁾

여기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이만오천송반야』와 팔리문헌 그리고 대중부설과는 전혀 다른 단계의 종성지 개념과 만난다. 다시 말해 『이만오천송반야』 등에서는 성자 직전의 단계로 상정된 종성지가 「보살지」에서는 수행의 첫 단계, 나아가 아직 수행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한 수행의 전제조건 정도로 하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종성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단계 설정을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종성지를 성자 직전의 단계가 아니라 설일체유부의 4선근위(kuśalamūlāni) 곧 순결택분위(nirvedhabhāgīyāni) 전체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다소 하향시켜 해석하는 방식은 이미 『대지도론』에 나타난다.²¹⁾ 이는 명백히 설일체유부의 설로 삼승공십지를 해석하려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지도론』의 경우도 종성지를 4선근위

19) MAV p. 56, 8-9: ... avatāravasthā* utpāditabodhicittasya ...

* 長尾본에 따르면 사본에 연성이 적용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

20) BoBh[W] p. 1, 19-22 ; 高崎(2010[1973]) pp. 379-380 참조.

21) 『大智度論』(TD 25) p. 380b2-5: 所謂性地人 ... 是地從煖法,

乃至世間第一法. ; 『大智度論』(TD 25) p. 586a5-6:

性地者聲聞人從煖法, 乃至世間第一法.

전체로 간주함으로써 성자 직전의 단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보살지」에서 확인한 것처럼 수행의 첫 단계에 국한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성지를 수행의 첫 단계로 간주하는 해석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본고에서 「성문지」의 종성지 개념에 주목한 것은 이 때문이다.

2. 「성문지」의 종성지

「성문지」 전체를 요약하는 계승에 따르면 「성문지」는 ‘종성’(rigs, gotra), ‘사람’(gang zag, pudgala), ‘결정적 확립’(nges par sbyor), ‘세간과 출세간’(jig rten pa [dang] jig rten 'das pa) 등 4 유가처(yogasthāna)로 이루어져 있다.²²⁾ 이 중 종성이라고 명명된 제1유가처는 다시 종성지(種姓地, gotrabhūmi)와 취입지(趣入地, avatārabhūmi) 그리고 출리지(出離地, naiṣkramyabhūmi)라는 3지로 나뉜다. 넓은 의미에서는 종성 곧 종성지가 취입지와 출리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종성지는 출리지와 취입지를 제외한 단계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종성에 머무는 자(住種姓者, gotrastha)가 오직 종성에만 머물 뿐 취입하지 않고 출리하지도 않는 경우, 취입만 할 뿐 출리하지는 않는 경우, 취입도 하고 출리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²³⁾ 주종성 단계 곧 종성지 단계가 취입지와 출리지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2) ŚrBh[T] p. 2,5-6.

23) ŚrBh[T] p. 28,19-21: gotra eva sthito nāvātīrṇo na niṣkrāntaḥ, gotrastho 'vatīrṇo na niṣkrāntaḥ, gotrastho 'vatīrṇo niṣkrāntaḥ

이하에서는 가장 좁은 의미의 종성지 개념을 중심으로 「성문지」의 종성지 및 종성 개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좁은 의미의 종성지는 다음 네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①종성(rigs) ②종성의 확립(rigs kyi rnam par gzhas pa) ③종성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rigs la gnas pa'i gang zag rnams kyi rtags) ④ 종성에 머무는 사람(rigs la gnas pa'i gang zag)이다. 이 중 ①에서는 종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 [네 가지 주제] 중에서 종성이란 무엇인가. 대답한다. 종성에 머무는 사람이 가진 종자(種子)라는 속성(sa bon gyi chos, *bījadharma)이다.²⁴⁾

이 인용문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종성 개념을 종자(種子, bīja) 개념으로 정의한다는 점에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만오 천송반야』나 팔리문헌 그리고 대중부설에서 종성지의 종성은 성자의 가계라는 개념으로서 종자 개념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문지」에서는 명백히 다른 기원을 가진 종자 개념으로서 종성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성문지」는 이 문장 직후에 종성과 종자를 동의어라고 주장하는 문장을 덧붙인다.

이 종성의 동의어는 무엇인가? 종자와 계(界, khams, dhātu)와 본성(性, rang bzhin, prakṛti/*svabhāva)이라는 [용어]는 [종성의] 동의어다.²⁵⁾

24) ŚrBh[T] p. 2, 18–19: de la rigs gang zhe na/ smras pa/ rigs la gnas pa'i gang zag gi sa bon gyi chos gang yin pa ste/ ...

25) ŚrBh[T] p. 2, 21–22: rigs de'i ming gi rnam grangs dag gang zhe na/ sa bon dang khams dang rang bzhin zhes bya ba ni ming gi rnam grans dag yi no//

이 문장을 추가한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앞선 인용문에서 종성을 종자로 정의한 것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종성과 종자, 계, 본성(本性)을 동일시하는 주장은 「보살지」의 종성 정의에도 발견된다.²⁶⁾ 하지만 「보살지」의 종성 정의에서는 종자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종성 정의가 「성문지」의 그것보다 발전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²⁷⁾ 「성문지」에서 종성을 종자 개념으로 정의한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성을 종자와 동일시 혹은 대체하려고 시도한 것은 「성문지」가 최초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문지」에서 종자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종자는 6處들과 다른 별개의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다. 무한한 과거로부터 연속적으로 흘러오고, 본래적으로 획득되어 있는, 동일한 6처의 상태(分位六處殊勝, *ṣaḍāyatanāvasthā/ṣaḍāyatanaviśeṣa)²⁸⁾에 대해 종성, 종자, 계, 본성이라고 하는 ... 29)

26) BoBh[W] p. 3, 6-7: tat punar gotraṃ bījam ity apy ucyate dhātuḥ prakṛtir ity api.

27) BoBh[W] p. 3, 1-6: tatra gotraṃ katamat. samāsato gotraṃ dvididham. prakṛtisthaṃ samudānītaṃ ca. tatra prakṛtisthaṃ gotraṃ yad bodhisattānāṃ ṣaḍāyatanaviśeṣaḥ. sa tādrśaḥ parampar'āgato 'nādikāliko dharmatāpratīlabdhaḥ. tatra samudānītaṃ gotraṃ yat pūrvakuśalamūlabhyāsāt pratīlabdham. tad asminn arthe dvididham apy abhipretam.

28) 한역에는 ‘六處殊勝’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만, 티벳어에는 ‘殊勝’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다. 아래 각주 18) 참조.

29) ŚrBh[T] p. 4, 15-18: sa bon de ni skye mched drug po de dag las logs shig na tha dad pa'i mtshan nyid med de [/] thog ma med pa'i dus nas rgyud de 'ongs pa dang/ chos nyid kyis thob pa'i skye mched drug po de ltar gyur ba'i gnas skabs de la rigs dang/ sa bon dang/ khams dang/ rang bzhin zhes bya ba'i ... ; 『유가사지론』(대정 30, 396a6-9): 如是種子, 非於六處有別異相. 卽於如是種類分位六處殊勝,

여기서 종자는 6처와 다른 것이 아니고, 무한한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며, 선천적으로 획득한 상태로 규정된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동일한 6처에 대해 종성·종자·계·본성이라는 명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미 종성을 설명하면서 종성과 종자를 동일시 하였으므로, 이러한 종자 개념이 종성 개념으로 설명될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사태는 바로 그렇게 전개되어 종성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그 종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종성]은 신체의 특별한 양태/신체에 부착한 것(*āśrayaviśeṣa/āśrayasanniviṣṭa)³⁰⁾이고, 6처에 포함되는 것이며(*śaḍāyatanasaṃgrhīta),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dharmatāpratīlabdha), 무한한 과거로부터(*anādikālika) 연속적으로 흘러온 것(*pāraṃparāgata)이다.³¹⁾

이 인용문에서 설명하는 종성의 본질이 앞선 인용문에 나타나

從無始世，展轉傳來，法爾所得 … 謂為種姓，種子，界，性。김성철(2011) p. 41 참조.

- 30) 티벳어 ‘lus las khyad par’에 근거하면, ‘*āśrayaviśeṣa’로 환범할 수 있지만, 한역 ‘附在所依’에 근거하면 ‘*āśrayasanniviṣṭa’로도 환범할 수 있을 것이다. ‘āśrayasanniviṣṭa’를 ‘附(布)在所依’로 한역하거나, ‘附屬所依’로 한역한 예에 대해서는, 勝呂(1982) p. 62) 및 山部(1990) p. 75, n. 20) 참조. 이상은 김성철(2011) p. 41, n. 9 참조.
- 31) ŚrBh[T] p. 2,21-4, 1: ‘o na rigs de’i rang bzhin ji lta bu zhe na/ de ni lus las khyad par du gyur pa dang skye mched drug gis zin pa dang chos nyid kyis ’thob pa dang thog ma med pa’i dus nas brgyud de ’ongs pa de lta bu yin te/ gang la ’di lta ste/ rigs dang sa bon dang khams dang rang bzhin zhes bya ba’i ming gi rnam grangs ’di dag yod pa de ni rigs zhes bya’o/; 『유가사지론』(TD 30) p.395c22-25: 問: 今此種姓以何爲體? 答: 附在所依, 有如是相, 六處所攝, 從無始世, 展轉傳來, 法爾所得. 於此立有, 差別之名, 所謂種姓, 種子, 界, 性. 是名種姓. 김성철(2011) p.41. 참조.

는 종자에 대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종성지(gotrabhūmi)’ 혹은 ‘주종성(gotrastha)’의 ‘종성’을 종자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른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취입(avatāra)과 출리(naiṣkramya)를 포함하지 않은 좁은 의미의 종성지에 머무는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질문] 그 중에서 종성에 머무는 사람이 종성에만 머물고 취입하지 않고 출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출세간법의 종자는 갖고 있지만, 선지식을 모시거나 정법을 듣거나 여래가 설한 법과 율을 믿지 않고, 계를 받지 않고, [가르침을] 듣지 않고, 보시를 늘리지 않고, 견해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 이것을 종성에만 머물고 취입하지 않고 출리하지 않는 것이라 이른다.³²⁾

이 인용문에서는 종성에만 머무는 사람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종자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거나 계율을 수지하지 않는 것 등이다. 앞서 본 종성의 본질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종성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을 종자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밑줄로 표시했듯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종자가 출세간법의 종자라는 사실이다. 이는 종성을 종자로 규정한다고 해도, 이 경우 종자는 업과 번뇌의 종자와는 다른 종류의 종자임을 보여준다.

32) ŚrBh[T] p. 30, 5-10: tatra katamo gotrasthaḥ pudgalo gotra eva sthito nāvatiṛṇo na niṣkrāntaḥ/ yathāpīhaikatyaḥ pudgalo lokottaradharmabījaiḥ samanvāgato bhavati/ na ca punar adyāpi labhate satpuruṣasamsevām vāgamyā saddharmaśravaṇam vā tathāgatapravedite dharmavinaye śraddhām, na śīlam samādadāti, na śrutam udgrhṇāti, na tyāgam brṃhayati, na drṣṭim rjūkaroti/ ayam gotra eva sthito nāvatiṛṇo na niṣkrāntaḥ//

이러한 언급은 종성지 다음 단계인 취입지(avatārabhūmi)에 대한 설명에도 나타난다. 앞서 설명했듯이 취입지는 「성문지」 제1유가처(yogasthāna)를 구성하는 3지 중 두 번째 단계다. 취입지 또한 종성지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①취입의 본질(svabhāva) ②취입의 확립(vyavasthāna) ③취입지에 있는 사람의 특징(līṅga) ④취입지에 있는 사람(pudgala)라는 네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① 취입의 본질(svabhāva)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중에서 취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열반의 종자법을 가지고 종성지에 머무는 그 사람이 ... 처음으로 붓다와 붓다의 제자를 보고, 가까이 가서 모시며,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들은 후 처음으로 믿음을 얻고 계를 바르게 받으며 가르침을 듣고 보시를 늘리며 견해를 바르게 한다.

그 후 법을 바르게 수지한 그 인연으로 신체가 파괴되고 목숨이 다 하여도 [다음 생에는] 이숙[의 결과](rnam par smin pa, *vipāka)인 6처에 포함되는 특별한 감관(skye mched drug gis zin pa'i dbang po khyad par du 'phags pa)을 획득할 것이다. 그 [사람]의 그 [감관]은 매우 뛰어나고 매우 근본적인 믿음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고, ... 이 믿음 등의 제법은 [다음 생에서] 다른 이숙[의 결과에 포함되는 6처]의 근거가 된다. 또 이 이숙[의 결과에 포함되는 6처]는 출세간법에 수순하는 [믿음 등] 다른 선법의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믿음 등의 법과 이숙[의 결과에 포함되는 6처]가 상호간에 원인이 되어 힘을 발생시키므로, 다음 생으로 윤회하여 마지막 생애에 이르기까지, 열반 [혹은] 견도에 들어가는 뛰어난 생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취입이라고 한다.³³⁾

이 인용문에는 앞서 종성의 본질을 규정하면서 등장한 ‘6처에 포함되는’(skye mched drug gis zin pa)이라는 용어를 ‘뛰어난 감관’(dbang po khyad par du 'phags pa)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

33) ŚrBh[T] p. 40, 6–27.

하고 있다. 이 용어들은 「보살지」에서 ‘본래 상태의 종성’(本性住種性, prakṛtistha-gotra)을 정의하면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인 ‘6처의 특별한 양태’(六處殊勝, ṣaḍāyatana-viśeṣa)를 연상시킨다. ‘본래 상태의 종성’이 「보살지」에서 ‘본래 상태의 종자’(本性住種子, prakṛtisthaṃ bijam)이라는 용어로도 등장한다는 것을 고려하면,³⁴⁾ 종성과 종자의 동일시는 「성문지」뿐 아니라 「보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밑줄로 표시했듯이, 이 인용문에서도 종성지에 머무는 사람은 ‘열반의 종자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고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종성지에 머무는 사람의 종성이 종자로 정의될 때, 그 종자는 업과 번뇌의 종자와는 구별되는 출세간법이나 열반법의 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보살지」의 종성 정의인 ‘6처의 특별한 양태’에서 ‘특별함’이란 이와 같이 업과 번뇌의 종자와는 구별되는 ‘출세간법의 종자’나 ‘열반법의 종자’를 의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보살지」와 「성문지」에 나타난 종성지의 단계와 그 단계에서 정의되는 종성 개념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문지」에서는 종성 개념을 종자 개념과 동일시하거나 나아가 종자 개념으로 대체한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종성이 가진 원래 의미는 크게 변한다. 곧 원래의 ‘성자의 가계’(āryagotra)라는 의미에 종자가 가진 의미인 ‘정신적 신체적 성향과 능력’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진 것이다. 나아가 ‘정신적 신체적 성향과 능력’이라는 측면이 ‘성자의 가계’라는 측면보다 더 강

34) BoBh[W] p. 401, 6-10: sa punar dhātupravibhāgaḥ samāsataś caturākāro veditavyaḥ. prakṛtisthaṃ bijam pūrvābhyāsasamutthitaṃ bijam viśodhyaṃ bijam. tad yathā parinirvāṇadharmakāṇaṃ. aviśodhyaṃ ca bijam. tad yathā aparinirvāṇadharmakāṇaṃ.

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종성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종자 개념 또한 제한된다. 종성의 정의에 등장하는 종자는 업과 번뇌의 종자가 아니라 출세간의 종자이거나 열반의 종자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처음 물었던 질문 곧 『이만오천송반야』에서 성자의 단계 직전에 위치하는 종성지가 최초기 유가행과 문헌에서 수행의 첫 출발점으로 간주된 이유에 대해 대답할 때가 되었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원래 대중부 전통에서 발전해 왔던 종성 개념이 다른 전통에서 발전해 온 종자 개념과 동일시 되거나 나아가 대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종자 개념과 동일시되거나 대체된 종성 개념은 더 이상 원래 가졌던 ‘성자의 가계’라는 의미를 유지할 수 없었고, 종자 개념에 내포된 ‘정신적 신체적 성향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 예비적 수행의 결과 도달하게 되는 성자 직전의 단계라는 의미의 종성지 개념은 성립할 수 없고, 수행의 첫 단계 혹은 전제조건으로 이해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 강해져 간다. 이하에서는 『유가사지론』 이후 종성지와 종성 개념의 궤적을 극히 간략히 그려본다.

Ⅲ. 「성문지」 이후 유가행과 문헌에서 종성지의 궤적

먼저 『유가사지론』 「본지분」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섭결택분」에서는 「성문지」와 「보살지」의 종성 개념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섭결택분」은 이러한 기대를 벗어난다. 「성문지」에 대한 「섭결택분」은 <종성지>에 대한 해설 중 ①종성과 ②종성의 확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③종성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 중 무종성인(無種姓人)에 대한 설명에만 집중하고 있다.³⁵⁾ 나아가 「성문지」에 대한 「섭결택분」에서 보살의 수행단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보살지」에 나타나는 7지설 중에서 종성지를 제외한 6지만을 언급하는데 그친다.³⁶⁾ 종성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보살지」에 대한 결택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섭결택분」은 「보살지」 「종성품」에 대한 설명을 「성문지」 본문으로 미루고 있으며,³⁷⁾ 「주품」과 「지품」에 나타나는 종성주와 종성지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섭결택분」은 종성지나 종성주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종성 개념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무착(無著, Asaṅga)의 주저인 『섭대승론』에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섭대승론』 본문에서는 종성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 등장한다.³⁸⁾ 하지만 이것은 『대승장엄경론』으로부터 인용한 계승으로서,³⁹⁾ 무착의 저술 부분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계승 내용 또한 일불도 아니고 다불도 아니라는 이유 중 하나로 종성이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으로서 본고의 내용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다. 『섭대승론』은 수행단계론 측면에서도 종성지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다.⁴⁰⁾ 대신 두드러지는 것이 종자 개념의 중시다. 『섭대승론』

35) 『瑜伽師地論』(TD 30) p. 669b8ff.

36) 『瑜伽師地論』(TD 30) p. 683b2-3: 復次, 諸菩薩, 初中後際世俗智者, 謂從勝解行地, 乃至到究竟地, 所有一切世俗智.

37) 『瑜伽師地論』(TD 30) p. 694c24-25: 如成立聲聞種性, 當知成立菩薩種性, 亦復如是.

38) 『攝大乘論本』(TD 31) p. 149b19-20: 種姓異非虛 圓滿無初故 無垢依無別 故非一非多.

39) MSA p. 48,3-4: gotrabhedād avaiyarthiyāt sakalyād apy anāditāḥ/ abhedān naikabuddhatvaṃ bahutvaṃ cāmalaśraye//

40) 『攝大乘論本』(TD 31) p. 142b14-16: 何處能入, 謂即於彼有見似法似義意言, 大乘法相等所生起, 勝解行地, 見道修道,

1장은 알라야식 존재 논증을 주제로 한 장이다. 여기에는 알라야식이 없다면 종자를 혼습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종자와 혼습의 다양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중 출세간법의 종자에 대한 설명에서도 종성 개념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⁴¹⁾ 이는 종성 개념을 종자 개념으로 완전히 대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착에게 귀속되는 또다른 논서인 『대승아비달마집론』(*Abhidharmasamuccaya*, AS)도 『섭대승론』과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곧 종성지 혹은 종성주라는 단계는 설정하지 않으면서, 「보살지」의 7지설과 13주설을 조합하여 간략화한 5단계 수행단계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⁴²⁾

세친(世親, Vasubandhu)의 유식삼십송(*Triṃśika*) 및 그에 대한 안혜(安慧, Sthiramati)의 주석에서도 종성지는 물론 종성이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유가사지론』 이후 이른바 아비달마적 경향의 유가행과 논서에서는 종성 개념은 거의 사라지고 종성지라는 수행단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가행과의 수행단계론의 발전 과정에서 설일체유부에서 유래하는 아비달마적 수행단계론이 대중부와 반야경류에서 발전한 대승적 수행단계론을 완전히 대체한 것을 의미할 것이다.

究竟道中.

41) 『攝大乘論本』(TD 31) p. 136b29ff.

42) 『大乘阿毘達磨集論』(TD 31) p. 688b26-28: 云何修行差別. 略有五種. 一勝解行菩薩. 二增上意樂行菩薩. 三有相行菩薩. 四無相行菩薩. 五無功用行菩薩. ; AS[P] 86, 19-22: adhimuktīcārī bodhisattvaḥ adhyāśayacārī bodhisattvaḥ nimittacārī bodhisattvaḥ animittacārī bodhisattvaḥ anabhisamkāracārī bodhisattvaś ca pudgalaprabhedah//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종성지’라는 수행단계가 『이만오천송반야』에서 등장한 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종성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만오천송반야』에서 종성지는 성자의 단계 직전이라는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때 종성 개념 또한 ‘성자의 가계’(āryagotra)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예비적 수행의 결과 도달하는 성인의 단계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성문지」와 「보살지」에서 ‘종성지’는 예비적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수행의 첫 출발점 내지는 전제조건으로 하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이후 아비달마적 성격의 유가행과 문헌에서는 ‘종성지’ 개념은 물론 ‘종성’ 개념조차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지위 변화의 근본적 이유는 종성 개념을 종자 개념과 동일시하거나 나아가 종자 개념으로 종성 개념을 대체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한 종성 개념은 원래의 ‘성자의 가계’라는 개념 대신 수행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향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성 개념의 정의에 적용되는 종자 개념 또한 원래의 의미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업과 번뇌의 종자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출세간법의 종자 혹은 열반법의 종자라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종성과 종자 개념의 만남과 상호 변용의 장이 다름 아닌 「성문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호 및 참고 문헌

- AS[P] *Abhidharmasamuccaya*. ed. by P. Pradhan, Visva-Bharati Series 12, Santiniketan, 1950.
- BoBh[W] *Bodhisattvabhūmi*. ed. by U. Wogihara, Tokyo, 1930-1936(repr. Tokyo: Sankibo Press, 1971).
- MAV *Madhyāntavibhāḡabhāṣya*. by Gadjin M. Nagao, Tokyo: Suzuki Research Foundation, 1964.
- MSA *Mahāyānasūtrālamkāra*, tome I texte, éd. par Sylvain Lévi,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Hautes études. Paris: 1907.
- PvP *Pañcaviṃśati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ed. by Nalinaksha Dutt. Calcutta: Calcutta Oriental Series, 28, 1934.
- SNS *Samḡdhinirmocanasūtra*. éd. par Étienne Lamotte. Louvain: 1935.
- ŚrBh[Sh] *Śrāvakabhūmi of Ācārya Asaṅga*. ed. by Karunesha Shukla. Patna: J.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73.
- ŚrBh[T] 『瑜伽論 聲聞地 第一瑜伽處 :
サンスクリット語テキストと和譯』. 東京: 山喜房佛書林 1998.
- 『解深密經』. 玄奘 譯, 大正藏 16, No.676.
- 『大智度論』. 龍樹 造, 後秦 鳩摩羅什譯, 大正藏 25, No.1509.
- 『瑜伽師地論』. 彌勒 造, 玄奘 譯, 大正藏 30, No.1579.
- 『攝大乘論本』. 無著 造, 玄奘 譯, 大正藏 31, No.1594.
- 『大乘阿毘達磨雜集論』. 唐 玄奘譯, 大正藏 31 No.1606.
- 김성철(2011). 「종성의 본질에 대한 유가행과와 여래장 사상의 해석」,
『불교학리뷰』 10,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pp.35-68.
- 가라시마 세이시(2014). 「누가 대승(Mahāyāna) 경전을 창작하였는가:
대중부(大衆部) 그리고 방등(vaitulya) 경전」, 『불교학리뷰』 12,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pp. 9-96.
- 釋惠敏(Bhikkhu Hui-Min, 1990). 「『聲聞地』의 ‘種姓’について」, 『佛教學』

29, pp. 13-31.

勝呂 信靜(SUGURO, Shinjo, 1982). 「アーラヤ識の語義」,

『田村芳朗博士還暦記念論集: 佛教教理の研究』. 東京: 春秋社.

高崎直道(TAKASAKI, Jikido)

2010[1966] 「GOTRABHŪとGOTRABHŪMI」, 『高崎直道著作集

第七卷: 如來藏思想・佛性論』(II). 東京: 春秋社, pp.

245-271.

2010a[1967] 「GOTRABHŪMI覚え書き」, 『高崎直道著作集 第七卷:

如來藏思想・佛性論』(II). 東京: 春秋社, pp. 273-314.

2010b[1973] 「種姓に安住する菩薩」, 『高崎直道著作集 第七卷:

如來藏思想・佛性論』(II). 東京: 春秋社, pp. 373-390.

山部 能宣(YAMABE, Nobuyoshi, 1990). 「眞如所縁縁種子について」,

『北島典生教授還暦記念論文集』. 京都: 永田文昌堂, pp. 63-87.

Abstract

On Gotrabhūmi in the Śrāvakabhūmi

Kim, Seongcheol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Geumg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and why the stage of gotrabhūmi, which comes just before the stage of sagehood in the *Pañcaviṃśati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is considered as the starting point of spiritual practice in the earliest *Yogācāra* literature, and also to take a brief look at its development in the literature that came after the *Yogācārabhūmi*.

Firstly, gotrabhūmi as it appears in the PvP is a fairly high stage of enlightenment, coming just before the stage of sagehood. In that stage, gotra means āriyagotra and is a result of preparatory practice. In the *Śrāvakabhūmi* and the *Bodhisattvabhūmi*, gotrabhūmi is not a result of preparatory practice, but is rather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of spiritual practice.

Furthermore, in the abhidharmic *Yogācāra* literature that came after the *Yogācārabhūmi*, the terms gotrabhūmi and gotra hardly appear at all. The reason for this significant devaluation is that the concept of gotra is identified with the concept of bīja or even replaced by it. In addition, the original meaning of gotra is also significantly changed.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e term bīja as “psycho-physical disposition and ability” is added to the

original meaning of “lineage of the sage” of gotra. Furthermore, the aspect of psycho-physical disposition and ability seems to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aspect of lineage of the sage.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bīja* is restricted by the concept of gotra when it is used in the definition of gotra, which means only “the supramundane *bīja* or *bīja* of nirvāṇa,” in contrast to the *bīja* of karma and kleśa.

The *Śrāvakabhūmi* is a literature for mutual transformation of the two concepts gotra and *bīja*, which developed from different traditions.

Keywords: gotra, *bīja*, Pañcaviṃśati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Śrāvakabhūmi, Bodhisattvabhūmi

투고 일자 : 2017년 3월 31일

심사 기간 : 2017년 4월 5일 ~ 23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4월 24일